기획예산처-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세미나

인구구조 변화,
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

발표 1

인구절벽의 현실:
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

민 보 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



2026. 10. 29.

민보경(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)



Ⅰ 서론: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
Ⅱ 인구 변화 현황
Ⅲ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미래사회 과제
Ⅳ 결론: 데이터로 본 인구절벽의 현실

서론: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

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0명대 지속, 초저출생 추세의 장기화

- 2018년 합계출산율이 0.98명으로 떨어진 이후 0명대 출산율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
- 2020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출생아 수 자체도 크게 감소

2020년,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'인구 자연감소(이른바 Dead Cross)'가 발생

- 이에 따라 2020년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약 2만여 명이 감소하여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

2024년 12월,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%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

- 지속적인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감소, 경제성장 둔화, 재정부담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로 이어질 수 있음

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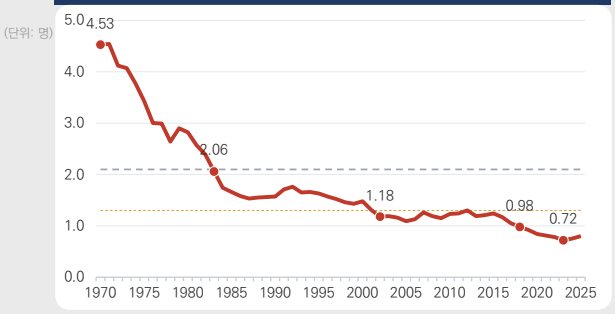
-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, 인구 감소 시대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국가 발전 전략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

인구 변화 현황: 합계출산율

초저출생 추세의 장기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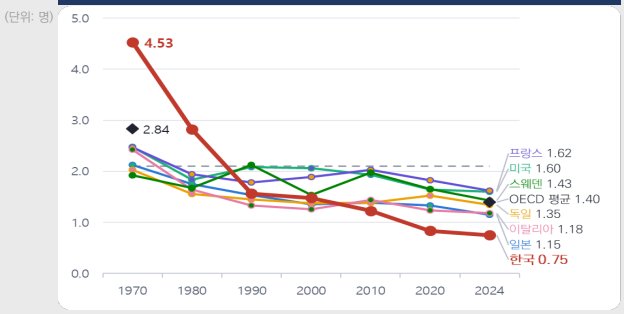
- 합계출산율은 1970년 4.53명에서 2024년 0.75명으로 감소
- 2000년대 초반 이후 1.1-1.3명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.0명 미만으로 추락 (※ 인구대체수준 합계출산율: 2.1명)

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추이: 1970-2025년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인구동향조사」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

대한민국 포함 OECD 주요 회원국 합계출산율 추이: 1970-2024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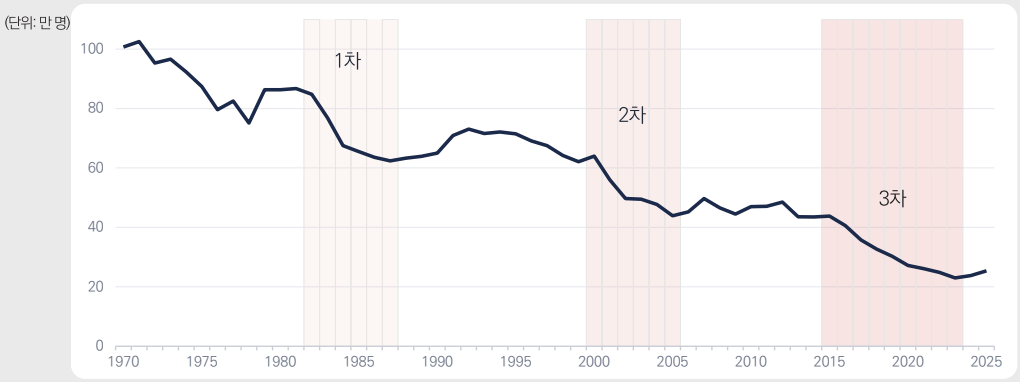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, 「OECD Family Database」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

인구 변화 현황: 출생아 수

1970년 이후 출생아 수는 세 차례 급감기, 즉 인구절벽

- 연간 출생아 수는 1970, 1971년 100만 명을 넘었으나 2023년 23만 명까지 줄어든 뒤 소폭 증가하여 2025년 25만 명 수준
- 인구절벽(출생아 수가 단기간에 급감한 시기):
  1차(1982-1987) 85만→62만 명(-26%), 2차(2000-2005) 64만→44만 명(-31%), 3차(2015-2023) 44만→23만 명(-4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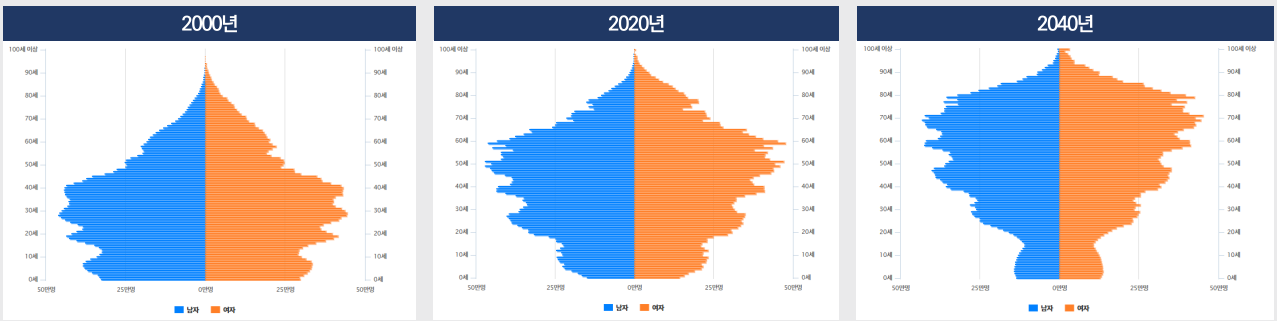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인구동향조사」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

인구 변화 현황: 인구 피라미드

저출생, 고령화로 인한 인구피라미드 역전

-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: 2050년,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인구
- 생산연령인구(15-64세)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



자료: 통계청, 통계지리서비스, https://sgis.kostat.go.kr/jsp/pyramid/pyramid1.js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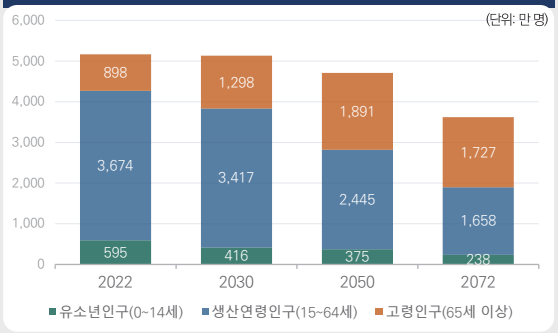
인구추계(중위값)

인구 변화 현황: 연령별 인구구조

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

- 노년부양비(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)는 2025년 29.3명에서 2072년 104.2명으로 약 3.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노령화지수(15세 미만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)는 2024년 기준 181.2에서 2040년 442.2, 2072년에는 726.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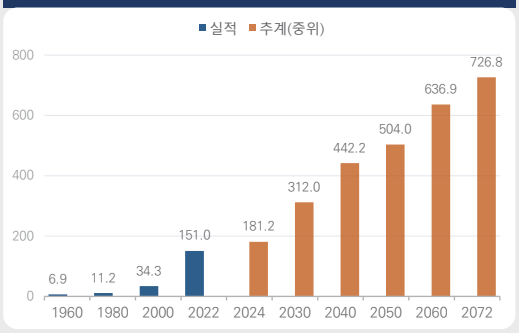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인구구조: 2022-2072년



주) 2023년 이후는 추계치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」(2023.12)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

대한민국 노령화지수 예측 추이: 1960-2072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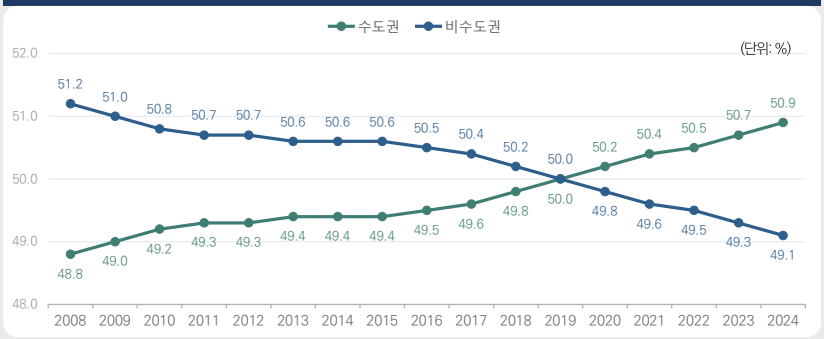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장래인구추계」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

인구 변화 현황: 인구 이동

수도권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농산어촌의 청년 유출·고령화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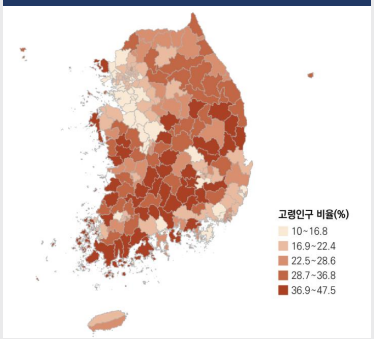
-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됨
- 일자리, 진학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유입된 20-30대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는 2010년 47,931명에서 2020년 93,430명으로 증가

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



자료: 행정안전부, 주민등록인구 통계, 각년도.

시군구 고령인구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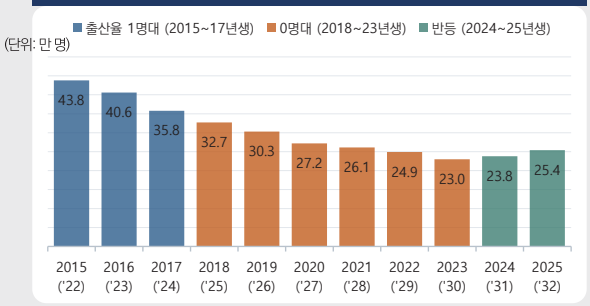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KOSIS, 행정안전부(주민등록인구통계, 2024)
자료 활용하여 작성

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미래사회 과제

학령인구의 감소: 12년 만에 초등학령인구 약 46% 감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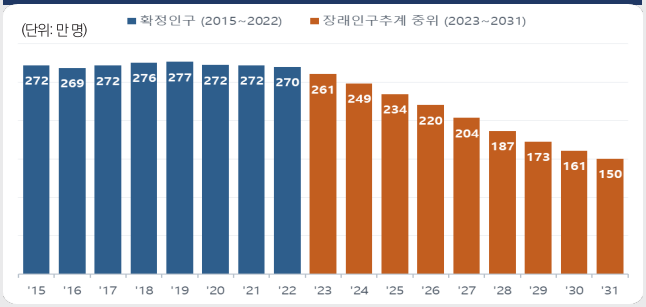
-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2018년 이후 출생아가 입학하면서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 30만 명 미만으로 감소
- 초등학령인구(만6-11세)는 2019년(277만 명)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3년간 매년 12만-15만 명씩 감소

연간 출생아 수와 초등학교 입학연도(괄호 안)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 출생통계(2015-2025), 교육부 2025년 초중고 학생수 추계 보정 결과(2026.1) 활용하여 재작성

초등학령인구(만6-11세) 추이(2015-2031)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(2023.12 공표, 중위) 활용하여 재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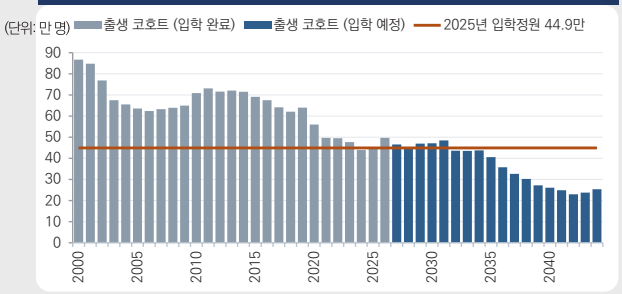
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미래사회 과제

대학 입학 자원: 2026년 49.7만 명에서 2042년 23.0만 명으로 감소

- 2000학년도(1981년생) 86.7만 명 → 2034학년도(2015년생) 43.8만 명 → 2042학년도(2023년생) 23.0만 명
- 2040년 입학생, 수도권 대학 정원 수준으로 감소 (*2024년 진학률 73.6% 일률 적용하여 계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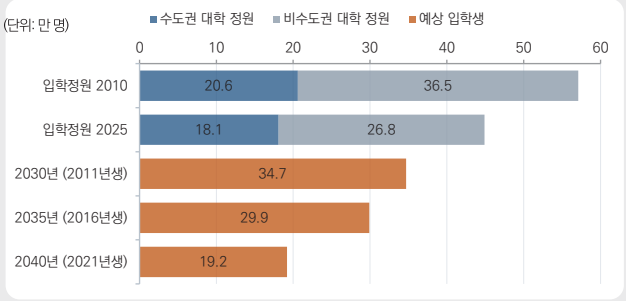
*대학진학률: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국내외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(재수생 미포함)

대학 입학 자원(2000-2044)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 출생통계(1981-2025), 대학교육연구소(2025년 입학정원 44.9만, 중앙일보 2025.10.30 보도)
주) 가로축은 대학 입학연도, 입학연도=출생연도+19년

대학 입학 정원 및 예상 입학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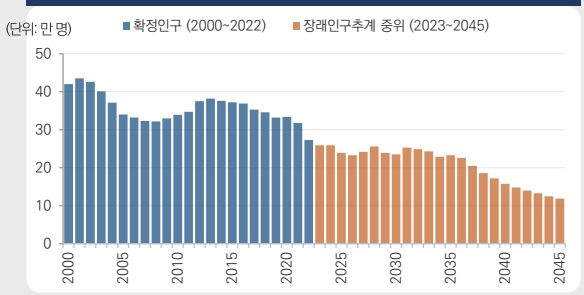
자료: 교육부·KEDI 교육통계(2024 진학률), 출생통계, 2026 교육기본통계, 대학교육연구소(중앙일보 2025.10.30)
주) 예상 입학생 = 입학연도-19년 출생아 x 73.6%

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미래사회 과제

병역자원의 감소: 20세 남성 43.5만 명(2001) → 11.9만 명(204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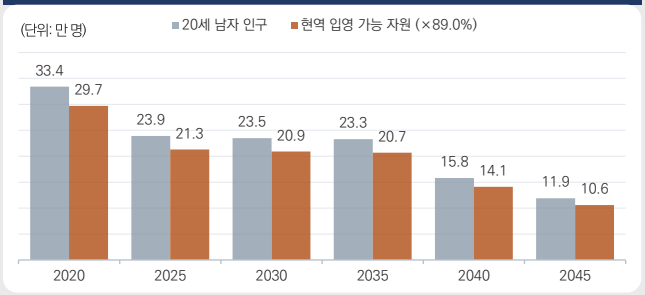
- 20세 남성 감소: 2001년 43.5만 명(1981년생) → 2022년 27.3만 명(2002년생) → 2038년 18.6만 명(2018년생)
- 2040년 현역 입영 가능 자원은 14.1만 명 (* 2차 국방개혁, 2040년 목표: 병사 37: 간부 63, 총인력 50만 명)

20세 남자 인구 추이(2000-2045)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(2023.12 공표, 중위)를 활용하여 재작성

현역 입영 가능 자원(2020-204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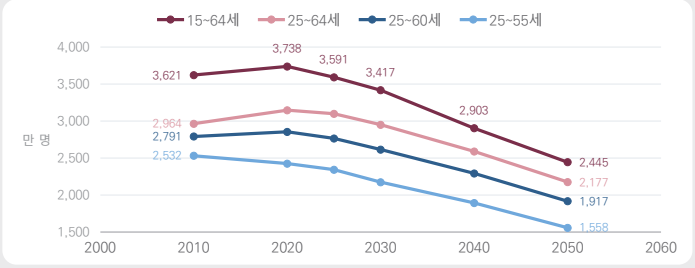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(2023.12 공표, 중위) 활용하여 재작성
주) 입영 가능 자원은 2025년 병무청 현역 판정률(89.0%)을 일괄 적용하여 계산

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미래사회 과제

노동시장: 노동 공급 감소와 경제활동인구 고령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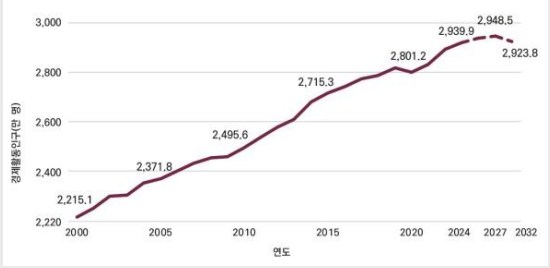
- 생산연령인구(15-64세 인구)의 감소는 총 노동 투입량을 제약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
-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약 3,68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4년에는 약 3,562만 명으로 2015년(3,671만 명) 대비 약 10년간 약 110만 명 감소
- 경제활동인구(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중이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)는 2027년 2,949만 명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, 그간의 증가는 주로 고령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기인

생산연령인구 수 추계(2010-2050)


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,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」 자료 활용, 국회미래연구원 인구통계 Brief 25-2호, p.2

경제활동인구 추이(2000-203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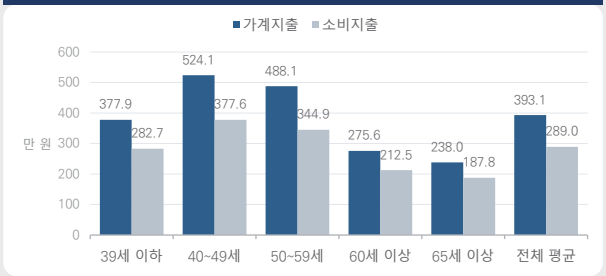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, 경제활동인구총괄」 자료 활용, 국회미래연구원 인구통계 Brief 25-2호, p.6

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미래사회 과제

산업: 내수시장 축소와 혁신 인재 기반 약화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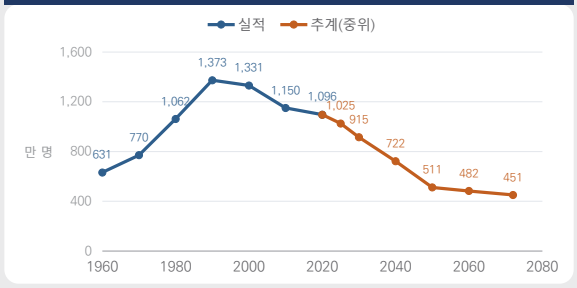
- 소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내수시장이 구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
- 2024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약 393만원, 60세 이상 가구는 276만원, 65세 이상 가구는 238만원 수준
- 청년 인구 감소는 기술 혁신을 이끌 인재 풀(pool)의 축소를 의미: 청년층(19-34세)은 2020년 약 1,096만 명에서 2072년에는 약 451만 명으로 약 58.9% 감소할 것으로 전망

대한민국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계지출 규모: 2024년

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

대한민국 청년(19-34세) 인구 수 추이: 1960-2072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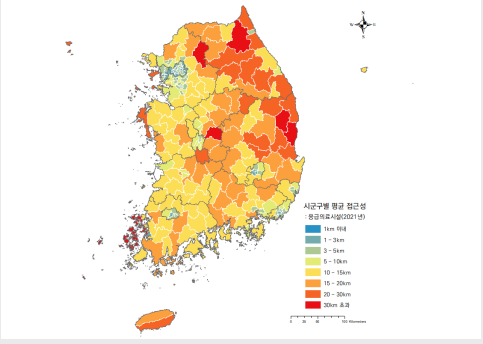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
주: 2025-2072년은 추정치로, 중위 추계 기반임

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미래사회 과제

지역불균형과 지역소멸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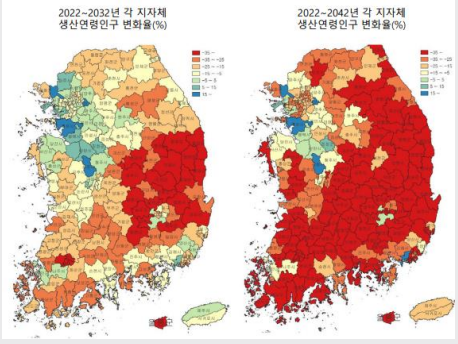
- 생활사막(life desert,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역)의 증가
- 인구 변화에 따라 인력 공급과 생활 인프라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확대

시군구별 의료시설(응급의료시설) 접근성(2021년 기준)



자료: 민보경 외(2023), p.68

시군구별 생산연령 인구 변화율



자료: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와 심중전환 세미나 자료집(이철희,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과제, p.33)

결론: 데이터로 본 인구절벽의 현실

이미 태어난 세대의 규모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

초등학교
- ✓ 2027년 초등학교 전 학년이 2015년 이후 출생아로 구성
- ✓ 초등학령인구 277만(2019) → 150만(2031)

대학
- ✓ 대학 입학 자원 49.7만(2026) → 23.0만(2042)
- ✓ 2040년 예상 입학생 19.2만 명, 수도권 대학 정원과 비슷한 수준

병역
- ✓ 20세 남성 20만 명 미만으로 감소(2038)
- ✓ 현역 입영 가능 자원 14.1만(2040)

노동
- ✓ 생산연령인구 2018년 정점 후 감소
- ✓ 경제활동인구 2027년 정점(2,949만) 이후 감소 전망

산업·지역
- ✓ 청년층 1,096만(2020) → 451만(2072)
- ✓ 청년 수도권 집중
- ✓ 생활사막 확대

- 2015-2023년 출생아 수는 43.8만 명에서 23.0만 명으로 약 **48% 감소**했으며, 그 영향은 생애주기를 따라 학교 → 대학 → 군 → 노동시장 순으로 나타날 전망
- 2024-2025년 출생아 수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이나, 이미 태어난 출생 코호트의 규모는 바뀌지 않으므로 그 영향은 상당 부분 예정되어 있는 **'확정된 미래'**임

결론: 인구구조 변화 영향의 세 가지 특성

영역별 영향은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순차적·연쇄적·불균등하게 나타난다

순차성
- ✓ 영향이 생애주기에 따라 시차를 두고 나타남
- ✓ 초등(2027) → 대학(2034) → 병역(2038) → 노동시장(2040년대)
- ✓ 영역마다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름

연쇄성
- ✓ 줄어든 청년 인구를 두고 대학·군·산업 간 인력 확보 경쟁
- ✓ 학령인구 감소 → 대학 운영 여건 약화 → 지역 청년 유출 → 지역 산업 약화
- ✓ 한 영역의 대응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침

불균등성
- ✓ 대학 정원 감축(2010~2025)의 80%가 비수도권에 집중
- ✓ 20~30대 수도권 순유입 2010년 4.8만 → 2020년 9.3만
- ✓ 비수도권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생활사막 확대 및 지역소멸 우려 확대

-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개별 부처의 사업 조정을 넘어 교육·국방·노동·산업·지역을 아우르는 **국가 시스템 차원의 재설계**로 전환할 필요
- 영역별로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과 정책 효과의 시차가 다른 만큼, 대응 시한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적응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



인구절벽의 현실: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